

## 현시기 브릭스의 급속한 영향력강화와 그 주요요인

김 홍 일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국제경제관계에 응당한 주목을 돌리는것은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발전을 위한 유리한 기회들을 찾아 신속히 대응하며 필요한 전략적대책들을 제때에 과학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지름길을 빨리 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들사이에 경제문화적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면 서로 부족한것을 보충하고 힘을 합쳐 빨리 발전할수 있으며 정치적단결도 공고히 할수 있습니다.》(《김정일전집》 제8권 510페이지)

지금 브릭스(BRICS)가 급속한 경제장성에 기초하여 자기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있는것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브릭스에 망라된 나라들은 서로 부족한것을 보충하고 힘을 합치는 방향에서 경제적협조와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는 과정에 경제의 급속한 장성을 이룩하고있으며 경제적성파에 토대하여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적락탈과 지배책동에 도전하여 그 영향력을 계속 강화해나가고있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브릭스라는 말은 2001년 11월 30일에 어느 한 나라의 조사기관이 작성한 세계경제실태에 대한 보고서 《세계는 보다 훌륭한 경제실체—브릭스를 요구한다》에서 처음으로 브라질, 로씨야, 인디아 등의 나라 명칭의 첫글자를 합친 상징적표현으로 출현하였으며 2010년에 남아프리카가 공식적으로 가입함으로써 5개 나라를 포함하게 되었다. 브릭스가 남아프리카를 성원국으로 포함하게 되면서 아프리카의 국내총생산액에서 거의 30%를 차지하고 거의 모든 공업부문과 비교적 완전무결한 공업체제를 가지고있을뿐아니라 세계최대의 자원보물고의 하나로서 세계경제의 장래전망을 크게 좌우할 거대한 잠재력을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

브릭스라는 말이 처음으로 출현한 때로부터 15년 남짓한 오늘날까지의 기간에 브릭스는 자기의 잠재력에 의거하여 성원국들의 경제장성과 세계경제흐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다.

브릭스의 영향력강화는 우선 성원국들이 경제적협력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동의 실천행동을 추진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브릭스의 영향력강화는 그 경제적협력의 수준에 기초하며 경제적협력의 수준은 성원국모두의 협력의지와 공동의 실천적노력 다시말하여 구호나 협상 그자체에 머무르는것이 아니라 협력의 실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이 나라들의 경제장성과 세계경제에 커다란 작용을 하는데서 표현된다고 볼수 있다.

브릭스나라들은 인디아의 뉴델리에서 진행된 제4차 수뇌자회의에서 결정한대로 브릭스개발은행을 창설하였으며 그밖에 외화저축과 상업리사회의 운영은 물론 5개 나라를 련결하는 2만 4 000km의 해저빛섬유케블을 부설하기 위한 사업에 이미 착수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서방나라들은 브릭스가 개념으로부터 실체으로 전환하는 관건적인 한걸음이

며 이 실체의 목표가 서방패권에 도전하며 서방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끝장내자는 것이라고 간주하고있다.

브릭스나라들은 국제문제의 초점으로 되고있는 에네르기 및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제 1차 수뇌자회의에서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리오선언》(Rio Declaration), 《21세기 의제》(21st Century Agenda), 기타 다무적인 환경보호조약들과 기후변화에 대처하여 브릭스내에서의 과학기술협조를 위한 협조기구들을 설립할데 대하여 견해 일치를 보았다.

브릭스의 영향력강화는 또한 이 나라들이 국제경제기구들에서 브릭스의 발언권을 높일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브릭스가 자기의 영향력을 강화하자면 이 나라들의 공동의 의지와 협력을 위한 노력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그러자면 세계경제의 흐름에 키잡이를 한다고 하는 국제경제기구들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존재감,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

브릭스나라들은 지금까지 성원국들사이의 경제적협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한 일련의 준비단계를 경과하였으며 그 과정에 국제무대에서 세계경제의 움직임과 전략적변화에 적지 않은 작용을 하는 주요국제경제기구들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인 법률적기초를 마련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브릭스나라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의 발언권을 높이기 위한 방향에서 국제금융체제의 개혁을 촉진하며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의 고위관리선출에서 공개성의 선거원칙을 적용하는 문제 등에 대한 견해일치를 보았으며 성원국개발은행들사이의 협조에 관한 합의를 이룩하고 《통화교환협정》에 대한 연구를 개시하였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브릭스나라들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의 선거회의에 참가하기 전에 공동보조를 맞추는것과 함께 그러한 공동보조가 국제무대에서 현실적인 발언권의 제고에로 이어질수 있게 그 구조적, 제도적기초를 마련하였다.

브릭스나라들은 우선 국제통화기금에서 자기들의 발언권을 높일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국제통화기금은 2012년 4월에 진행된 20개국집단 재정상 및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성원국들이 난관을 겪을 때 쓰기로 한 긴급사용기금한도를 이전의 5 200억US\$에서 4 300억US\$ 더 추가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브릭스에 속한 5개 나라들은 이 수뇌자회의에서 성명을 발표하여 일단 국제통화기금이 자기의 개혁방안을 완전히 실시하고 신흥경제국들에 더 많은 발언권을 주어야 자기들이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자금출자를 늘일것이라고 밝히였으며 20개국집단 수뇌자회의에 참가한 각국 수반들은 모두 이 나라들의 요구에 동의를 표시하였다. 이어 브릭스나라들이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출자에 참가하였으며 로씨야와 브라질, 인디아는 각각 100억US\$씩 기부하였다.

그리하여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세계경제에 대한 장악통제능력, 발언권이 축소약화되고 브릭스의 발언권이 실제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국제통화기금에서는 긴급사용기금의 증가 및 출자국가조정을 통해 발전된 나라들의 몫이 개혁이전의 65.4%에서 57.7%로 내려갔으며 인디아, 로씨야, 브라질의 출자몫은 조종후 각기 2.751%, 2.706%, 2.316%

로 상승하였고 통화기금의 앞선 10대주주국으로 되었다. 그밖에 5개 주주국을 보면 미국이 17.407%, 일본이 6.464%, 도이칠란드가 5.586%, 프랑스가 4.227%, 이탈리아가 3.161%이다.

브릭스나라들은 또한 세계은행에서 자기들의 발언권을 높일수 있는 기초를 다져놓았다.

브릭스나라들은 세계은행을 발전도상나라들의 리해관계를 중시하는데로 개혁을 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가지고 세계은행이 주관하는 국제경제문제들의 해결과 관련한 의사결정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2012년에 세계은행의 출자몫에서 브릭스나라들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의사결정과정에 브릭스나라들을 기본으로 하는 발전도상나라들의 투표권이 3.13% 높아져 47.19%에 달하였다. 개혁전과 비해볼 때 브라질과 인디아는 각기 2.07%, 2.78%로부터 2.24%, 2.91%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투표권은 16.36%, 7.85%로부터 15.85%, 6.84%로 내려갔으며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는 4.30%로부터 3.75%로, 도이칠란드는 4.48%로부터 4.00%로 내려갔다.

세계의 많은 국제경제문제전문가들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에서의 출자몫의 구성변화가 다원화의 추세를 뚜렷이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하고있다.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해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7개국집단( $G_7$ )이 세계경제의 키를 잡는다고 하던 시대는 지나가버렸다고 말할수 있다.

브릭스의 경제분야에서의 영향력강화는 자연히 국제정치 및 문화령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브릭스나라들은 정치 및 문화분야에서 지역 및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써 성원국들이 접촉과 교류를 통하여 호상 정치적리해를 도모하고 각자의 문화에 대한 호상리해를 촉진하며 교육, 보건, 반테로, 체육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수립한다는 합의를 이룩하였다.

브릭스나라들은 또한 최근의 수리아정세에 대해서도 《수리아인주도의 포괄적인 정치》를 실현하는것을 지지하고 아랍련맹의 대응을 환영하고있으며 이란정세에 대해서는 무력충돌로 발전하는것을 우려하여 외교나 대화에 의한 해결을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 브릭스가 현재 발전도상나라들의 리해관계를 중시하고 실현하는 방향에서 국제금융제도의 개혁, 세계무역기구 도하라운드협상, 기후변화협상 그리고 유엔개혁과 같은 세계적인 문제토의에 활발하게 참가하여 두각을 나타내고있으며 21세기 국제경제관계의 변화를 촉진하는 하나의 주목할만 한 협력실체로 발전하였다고 볼수 있다.

현시기 브릭스의 급속한 영향력강화에 작용하는 요인은 무엇보다먼저 성원국들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지를 가지고있는데 있다.

지금까지 서방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은 저들의 앞선 기술과 시장구조, 금융관계에서의 독점적지위에 의거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을 착취하고 배를 불리우는데 버릇되어왔으며 어떤 경우에도 저들의 세계경제에 대한 지배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였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적발전은 발전도상나라들의 인적 및 물적자원을 수탈하여 이룩된것이다. 그러나 서방나라들은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지원은 고사하고 의연히 이 나라들을 녹고 안전한 인적 및 물적자원의 보급기지, 과잉상품의 판매시장으로만 여겨

오고있다.

서방자본주의나라들과는 그 어떤 기술적지원이나 평등한 지위에서의 경제적협조가 불가능하다는것을 인식한 브릭스나라들은 자기들의 우점을 틀어쥐고 자기 식의 경제발전 전략을 세워 남남협조와 같은 형태의 경제기술적협조를 실현하는데로 나가게 되었다.

브릭스나라들의 서로의 협력에 대한 절실한 리해관계와 확고한 의지는 특히 미국에서 발생하여 전세계로 파급된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하여 더욱 굳어지게 되었다.

2008년 9월에 미국에서 발생한 주택대부위기는 자본주의세계경제전반에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 겪어본 위기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최악의 쇠퇴를 초래하였다. 서방의 발전된 나라들은 물론 브릭스나라들을 포함한 발전도상나라들도 세계금융위기의 쓴맛을 보았고 매우 수습하기 어려운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세계경제체제》에 융합되었던 브릭스나라들이 다른 발전도상나라들에 비해 막심한 피해를 보게 되었다. 실례로 국내총생산액장성률의 변화를 들수 있는데 중국은 2007년에 13%로부터 2008년에 9%로, 2009년에 8.5%까지 떨어졌고 인디아는 각각 9.4%, 7.3%, 5.4%, 브라질은 각각 5.7%, 5.1%, -0.7%까지의 급강하를 기록하였다. 특히 로씨야는 세계금융위기로 인하여 최대의 피해를 보았다. 로씨야의 국내총생산액장성률은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8.1%, 5.6%였지만 2009년에는 -7.5%까지 급격히 하강하였다. 브릭스나라들의 이러한 경제후퇴는 취약한 미국경제에 이러저러하게 얹혀있었던 대외경제구조로부터 초래된 직접적산물이었다.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세계금융위기는 브릭스나라들로 하여금 어려운 시기에 서로 손을 맞잡는것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가지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우와 같은 곡절과 도전들을 경험하는 과정에 오늘과 같이 세계의 각이한 지역에서 경제발전속도가 빠른 브릭스나라들이 자기들의 인적 및 물적자원들을 합리적으로 결합시켜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는데로 나가게 되었다.

브릭스나라들은 호상 리해를 두터이 하고 협력을 위한 실제적인 대책들을 공동으로 취해나가기 위하여 충돌과 대항성격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적리속을 차리는 《협력》관계에서 벗어나 자기 식의 협력구조를 갖추어나가고있다. 이를 반영하여 브릭스나라들사이에 쌍무적인 회의들, 대화들, 각이한 수준의 그리고 각이한 분야에서의 협력제도들이 생겨나고있다.

브릭스나라들의 서로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현상은 일부 성원국들의 최고위지도자들이 매해 4~6차례에 걸쳐 만나고있으며 수상들은 적어도 한해에 2차례, 부수상들은 60~70차례, 부상들은 한해에 400~500차례이상 만나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이러한 제도는 이 나라들이 호상관계의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새로운 협조령역을 찾아내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있는것으로 볼수 있다.

이처럼 브릭스나라들이 호상 협력의 유익성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가지고있는것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브릭스의 지위가 부단히 높아지고 이에 따라 서방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 도전하여 세계경제의 흐름을 역전시킬수 있는 실체로 세계의 주목을 모으게 된 중요한 요인의 하나라고 말할수 있다.

현시기 브릭스의 급속한 영향력강화에 작용하는 요인은 다음으로 그 커다란 경제적 잠재력에 있다.

브릭스나라들은 공동의 협력으로 경제장성을 다그쳐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며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리익실현에 초점을 둔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허물어버리고 다극화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할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있다.

현재 브릭스는 세계인구의 40%, 령토의 25%, 세계국내총생산액의 약 20%, 세계외화보유액의 43%를 차지하고있다. 세계경제전문가들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 브라질 경제는 규모에 있어서 이딸리아를 룡가하고 인디아와 로씨야는 각각 에스빠냐와 캐나다 혹은 이딸리아를 따라앞서게 된다. 2020년경에는 브릭스의 경제규모가 세계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세계국내총생산액의 장성에 대한 그 기여률이 약 49%에 달할것으로 예견된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속도로 나가면 브릭스의 경제규모가 초기의 예측보다 7년이 당겨진 2032년에 7개국집단과 대등하게 될것이라고 보고있다.

피터슨국제경제학연구소가 밝힌데 의하면 비교적 큰 발전도상나라들의 인구 한사람당 소득이 1960-2000년에 미국보다 빨리 장성하였으며 최근의 10년사이에 인구 한사람당 국내총생산액의 평균장성률이 미국에서보다 3.3% 더 빨리 높아졌는데 이것은 지난 40년동안에 비하여 2배이상 장성한것으로 된다.

만일 브릭스나라들을 기본으로 하는 신흥시장국들이 미국보다 계속 연간 3%정도 더 빨리 장성한다면 그들은 2030년에 가서 세계생산량의 3분의 2를 차지하게 된다. 남아프리카, 튀르키예, 아르헨띠나, 인디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웰남 등으로 이루어진 신흥시장국가운데서 로씨야, 인디아, 브라질 등 4개 나라들의 국내총생산액은 가까운 시기에 세계 국내총생산액의 5분의 2를 차지하게 되는 반면에 미국과 유럽동맹이 차지하는 몫은 3분의 1이상으로부터 4분의 1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오늘의 세계에서 자주와 평등, 호혜의 리념에 기초하여야만 공정하고 실리있는 국제경제관계를 기대할수 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을 도와주려는 의지를 키우며 실제적인 협력행동으로 나오는것이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취할수 있는 합리적선택이라고 볼수 있다.

실마리어 브릭스, 대외경제관계